★ 중앙교회 구역 모임(20-25) ★

※ 교제와 축복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모임을 위한 기도 / 대표 기도자

※ 경배와 찬양 /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1.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일제 말기 천황숭배를 거부한 김용기 장로의 이야기다. 그는 경기도 양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농촌운동에 헌신하였다. 일제 말기에 광적으로 강요하던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묵도, 창씨개명 등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8.15 해방을 맞을 수 있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예화가 있었다. 그도 역시 신사참배와 국민의례 거부로 수차 경찰서에 불려가 발길로 채고 얻어맞았다. 다시 양주경찰서 고등계 차석이던 홍OO와 이 문제로 시비하던 끝에, 그는 다시 일본인 고등계 주임 다치에게 끌려갔다. 그 역시 한바탕 족친 후, 국민의례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유독 그만 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그는 솔직히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오. 조선 사람이 일본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반대로 일본인이 조선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러니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것이오. 가령 묵념하면서 속으로 천황폐하를 욕하는지 어쩌는지 누가 알겠소? 사람을 마음속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니 차라리 하지 않으면 천황폐하도 욕을 먹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니 서로 좋을 것 아니오?"

그러자 그 형사도 **"네 말이 옳다"**고 하면서 그런 따위로 하는 국민의례라면 당연히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형사는 자기 입장이 곤란하게되니까 다른 교회에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김용기 장로의 교회에서는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였다. 그 후 해방될 때까지 다시는 그 교회에 그런 일을 강요하지 않았다.

1)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 말씀나누기

설교 :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마태복음 5:33-37)

1. 진실만을 이야기하십시오
2. 말장난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3.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책임도지지 않으려는 자입니다.

나눔1. 거짓 맹세는 몇 계명과 연관이 있습니까?(레19:11-12)

나눔2. 예수님은 맹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마5:34)

나눔3. 무엇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마5:34-36)

나눔4. 우리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마5:37)

3. 은혜나누기

1) 옳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2)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도록 기도합시다.

3) 중보기도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여 각자의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을 교단 총회장으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결교단 및 한국교계를 더욱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使者)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3) 한국교회를 붙들어주셔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회복되게 하시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4)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5) 파송선교사를 위한 기도: 키르키스스탄 정환갑 김세연
교회인도자들이 항상 공급하심을 체험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가족이 되도록, 우즈백에 세워진 사역자를 위해

☏중보기도 핫라인 010-2221-3346

4. 사역나누기

1) 교회사역안내

● **생명운동 캠페인69-6월 "3 GO" /**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조

2) 찬송 /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3) 헌금

4) 주기도